

#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결과 보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는 '00년 ASEAN+3 정상회의에서의 한일중 3국간 경제협력증진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를 위하여 '01년 이후 매년 3국이 번갈아 개최

- 총 23회 8,142명(한국 2,329명·일본 2,887명·중국 2,893명·TCS 33명) 참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협력 플랫폼 발전·지역단위 협력 독려
- 그간 산학관 비즈니스포럼, 산업단지·특구협력포럼, 식품·관광포럼, 총장포럼, 물류포럼, 전체회의, 전시회 등 경제협력 사업 시행 및 공로자 표창
- \* 산학관 비즈니스협력, 도시환경개선, 철도·항만복합물류, 전시회 개최, 산업단지개발, 공동연구, 인재육성 등 무역투자·산업기술교류·인재교류협력사업을 제안하고 실행

## 1. 제2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전체 개요

- 일 시 : 2025.11.17(월)~11.21(금) \* 본회의 : 11.19(수)
- 장 소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 참가자 : 한국·중국·일본(큐슈)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332명(한국 205명, 일본 42명, 중국 85명, TCS 3명)
  - 【한국】 산업통상부, 지자체(부산, 대전, 광주, 울산, 세종), 경제단체(한일경제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경제진흥원 등), 대학, 기업 등 205명
    - ※ 환황해 지역(6시 9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중국】 상무부, 주한중국대사관, 지방정부(베이징시, 다롄시, 톈진시, 산둥성, 랴오닝성, 장쑤성, 저장성, 지린성, 네이멍구),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85명
    - ※ 환황해 지역(3시 6성 1구)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산둥성, 랴오닝성, 허베이성, 장쑤성, 광둥성, 지린성, 네이멍구자치구
  - 【일본】 큐슈경제산업국, 지자체(사가현),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큐슈경제연합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42명
    - ※ 환황해 지역(7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오이타현, 구마모토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구마모토시
  - 【TCS】한중일삼국협력사무국 3명

○ 주최 및 주관

- (韓) 산업통상부, 한일경제협회,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中) 상무부, 상무부 아주사
- (日)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연합회)

○ 회의 테마 :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

~ 바이오헬스케어·과학기술(AI)·비즈니스 교류 ~

2. 주요 성과

□ 각각 5년만에 개최된 2024년 한중일 정상회의(24.05 서울) 및 2025년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25.03 서울) 결과를 계승,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테마로 3국간 교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
- (한중일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한중일FTA 추진, 다자무역 체재 강화 등
- 바이오헬스케어·과학기술·비즈니스교류 분야에 있어서,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25건 주제발표)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 성장  
\* '01년 약1,600억 달러→24년 약6,586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19%로 증가)

□ 3국 간 경제·기술교류 사례 소개·제안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위한 3국 협력방안으로 ①전략산업에 대한 3국간 보호 관세 철폐 및 인재교류, ②국제협력 카본제로 산업단지 공동조성, ③미(美)와 건강을 공동테마로 연구·산업연계 추진, ④AI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환황해 물류시장 협력, ⑤AI와 Cloud 기반 초격차 신약개발과 협력 비즈니스모델 제안 등

□ 산학관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위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 병행 개최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및 과학기술(AI)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환황해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지역간 교류를 한층 더 심화

- ①부품 공동개발 및 우위기술 상호 이전, ②환황해권 글로벌 멘탈케어 브랜드 육성 및 공동사업, ③한중일 산업별 기상기후융합서비스 구현

□ 3국 정부간 국장회의에서 환황해 지역의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촉진을 위한 3국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교환

- 3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협력, 한중일 3국의 제4국 공동진출 협력강화, 교육·인적자원·관광 등 3자간 협력확대 등

□ 2026년 차기회의(제24회)는 중국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에서 개최

### 3. 세부 내용

□ 수소, AI 등 미래산업 분야의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테마로 한중일 3국 간 교류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①바이오헬스케어, ②과학기술(AI), ③비즈니스교류 사례의 공유와 환황해 지역으로의 전개를 통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3국간 협력방안(25건) 논의

○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보완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 및 경제공동체 형성 기반구축

○ 제1회 회의 개최당시인 2001년 대비 3국 무역규모는 약 4배 성장

- '01년 약1,600억 달러 → '24년 약6,586억 달러(한중일 3국의 전세계 교역비중은 12%에서 19%로 증가)

□ 산학관 비즈니스 협력 증진을 위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의 병행개최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및 과학기술(AI)의 3국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3국간 협력·제휴를 제안함으로써 지역 간 경제교류를 한층 더 심화하는데 기여

○ 바이오헬스케어와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여 상호국의 전략과 활동 상황 등에 대해 상호 이해와 기업·대학 등의 협력 및 제휴를 도모

- ❶ 탄소 복합소재 및 응용제품을 활용한 한중일 협력, ❷ 못난이채소를 활용한 야채 시트, ❸ 뇌 건강 멘탈케어 솔루션 브랜드 육성 및 공동사업 제안, ❹ 해초의 염분 오프셋 기술을 활용한 서플리먼트 등 제안

○ AI 등 과학기술의 개발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중일 3국 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기존 산업 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지역간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기여

- ❶ UAM산업의 전망과 한중일 협력, ❷ 폐기물을 활용한 디자인 및 네트워크 구축, ❸ 한중일 산업별 기상기후융합서비스 실현을 통한 경제적 손실 최소화 등을 제안

□ 본회의에서 3국 지역 간 경제·기술교류사례 소개 및 제안을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

○ 금번 회의시 정밀기계, 화장품, 자율주행로봇, 신약개발 분야의 산업 협력 및 지역 간 교류 등 한중일 교류 확대를 위한 9개 협력사업을 소개, 차기회의를 중국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❶ 전략산업에 대한 3국간 보호관세 철폐 및 인재교류, ❷ 카본제로 산업단지 공동조성, ❸ 미(美)와 건강을 공동테마로 연구·산업연계 추진, ❹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환황해 물류시장 협력, ❺ AI와 Cloud 기반 초격차 신약개발과 협력 비즈니스모델 등을 제안

□ 환황해 회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3국 정부 국장회의에서는, 3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첨단산업 협력, 한중일 3국에 의한 제4국 공동진출 협력강화, 교육·인적자원·관광 등 3자 간 협력확대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① 3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 · 환황해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 강화 · 공급망 안정화 ② 첨단산업 협력 · 韓ICT·바이오의료기술/中데이터와 인프라/日소부장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세계 첨단산업의 새로운 길 제시 · 기술과 인재, 규제경험 공유, 공동연구 등 협력의 폭 확대 ③ 한중일 3국의 제4국 공동진출 협력 강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무역, 투자 등 전통 분야 협력의 지속 (공급망 안정)</li> <li>② 서비스 분야의 3국 협력 (양로, 교육, 인적자원, 관광 등)</li> <li>③ 첨단산업 협력 가능성 논의(AI, 신재생에너지 등)</li> <li>④ 글로벌 의제의 지속 논의 (CN, 녹색발전, 기후변화 협력)</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상호협력 (모범사례 공유, 이벤트 참가)</li> <li>②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경제산업성 및 큐슈의 활동 소개</li> </ul>

### 【제2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사례소개·제안】

구분	제 안 내 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밀기계 분야의 환황해 지역 협력방안 제안 (대성하이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speedy한 개발, 중국의 비용 경쟁력, 일본의 장인정신을 합치는 공동전략 필요 ㉡전략산업에 대한 3국 간 보호관세 철폐, 인재교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노력 필요</li> </ul> </li> <li>② AI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환황해 물류시장 협력 제안 (트위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일 물류현장 선정 및 도입효과의 입증,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최적화 솔루션 공동개발, ㉢원가경쟁력을 위한 중국 파트너사 협력</li> </ul> </li> <li>③ AI, Cloud 기반 신약개발과 비즈니스모델 제안 (신테카바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반 협업 패키지를 통한 3국 물류 협업 (신테카바이오가 설계한 항체평가를 위한 온셀 포유류 디스플레이 기반 기술 지원 제안)</li> </ul> </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랴오닝성 발전기회 공유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촉진 (랴오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랴오닝성 투자환경 소개 및 다분야 협력 촉진 제안</li> </ul> </li> <li>② 옌청시 국제협력 카본제로 산업단지 조성 협력 제안 (옌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옌청시 산업단지 소개 및 협력 제안</li> </ul> </li> <li>③ 저장성 자싱시 소개 및 투자제안 (저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싱시 산업단지 소개 및 투자 제안</li> </ul> </li> <li>④ 2026년 제24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유치 (네이멍구)</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환황해 바이오헬스케어산업 가능성과 제안 (재팬코스메틱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와 건강을 공동테마로 연구·산업연계 추진, 한중일 각국 천연자원과 기술 연결해 부가가치 창출, 대학 및 기업간 공동연구 및 청년인재 육성</li> </ul> </li> <li>② 공개 거부 (사이퓨즈)</li> <li>③ AI 카메라를 활용한 축산시스템 협력 제안 (파머즈서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일 축산시스템 협력 및 글로벌 전개</li> </ul> </li> </ul>
T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중일 협력 실태와 TCS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지적재산 스타트업 캠프, 한중일 이노베이션 교류 in STEM</li> </ul> </li> </ul>

#### 4. 평가

- 이번 회의는 美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전쟁) 등 불투명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증진에 대한 공감대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음
- '24.05월 서울에서 4년 5개월만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환황해 회의 플랫폼 발전·지역단위 협력 공동선언) 및 '25.03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결과를 계승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과 발전'을 테마로 한중일 3국 간 교류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
- 뉴시스, 머니투데이, 충남일보 등 제23회 환황해 회의 관련 기사 게재
-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을 계속 독려
- 보호무역, 전쟁의 장기화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도, 지역간 협력의 지속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

#### 5. 후속조치 및 향후 추진계획

- 한중일 3국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3국간 구체적 협력방안 협의 및 후속조치 실행
- 환황해 회의는 환황해 연안지역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지자체 참여도를 높이는 활동 및 정보공유 강화
- 제22회 회의부터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내몽골) 합류, 2026년도 7월 제24회 회의 개최

**1 본회의**

□ 한국

발표자	내 용
<p>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이사</p>	<p>□ 환황해 교류사례를 통한 정밀기계 산업의 발전과 미래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기계산업과 글로벌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관세/보조금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li> <li>② AI, 로봇시장은 정밀기계산업과 높은 연관성</li> <li>③ 개별 생존보다는 한중일 공동대응의 시기</li> </ul> </li> <li>○ 대성하이텍 회사소개 및 주력사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국(합작법인@대련, 테크니컬센터@쿤산)</li> <li>② 일본(전략전 M&amp;A 법인@동경, 테크니컬센터@나고야)</li> <li>③ 주력사업 : 마이크론 단위 초정밀부품, Swissturn 자동선반, 탭핑센터 등 일본 50여개사에 약 8천종 부품 공급 중</li> </ul> </li> <li>○ 환황해 정밀기계산업 발전방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 세계는 미래 발전산업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중</li> <li>② 일본의 '장인정신', 한국의 '스피디한 개발', 중국의 '비용적 경쟁력'을 합치는 공동전략이 필요</li> <li>③ 전략산업에 대한 3개국 간 보호관세의 철폐, 인재의 교류,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공동노력이 필요</li> </ul> </li> </ul>
<p>김재성 트위니 본부장</p>	<p>□ AI 자율주행로봇(나르고)을 활용한 환황해 물류시장 협력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황해 물류혁신과 AI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중일은 e커머스, 3PL 분야 세계시장 선도 중이나, 매우 유사한 성장통을 겪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요구를 받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 불가능한 공통과제</li> </ul> </li> <li>② 다양한 자동화 설비 도입을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 중</li> <li>③ 오더피킹 시장규모 : 한중일 합산 약 43조원</li> </ul> </li> <li>○ 트위니사 오더피킹 설비와 기존 설비와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존 오더피킹 설비는 초기의 막대한 자본지출의 부담과, 주문변동에 따른 유연성 처리에 어려움을 수만</li> <li>② 트위니의 나르고 오더피킹은 자율주행로봇과 AI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피킹 솔루션으로, 피킹 생산성과 정확성을</li> </ul> </li> </ul>

발표자	내 용
	<p>극대화(고객사 도입효과 : 평균 작업시간 1/2로 단축)</p> <p>③ 주력사업 : 마이크론 단위 초정밀부품, Swissturn 자동선반, 탭핑센터 등 일본 50여개사에 약 8천종 부품 공급 중</p> <p>○ 환황해 물류혁신을 위한 협력모델</p> <p>① 중국과 일본의 물류현장을 선정, 나르고 도입효과 검증</p> <p>②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각국 작업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공동개발</p> <p>③ 글로벌 원가 경쟁력을 위해 중국의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생산거점 구축</p>
<p>정종선 신테카바이오 대표이사</p>	<p>□ AI와 Cloud 기반 초격차 신약개발과 협력 비즈니스모델 제안</p> <p>○ 약물 시장은 '성과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AI는 신약개발에 있어 실질적으로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p> <p>① 2021년 첫 시도, 파킨슨병 치료제의 후보군을 발견</p> <p>② 2024년 Nature Biotechnology에 '컴퓨터 디자인 항체생성 및 검증 챌린지'라는 내용이 기고</p> <p>- 인공 실리코 항체 설계</p> <p>③ AI와 슈퍼컴퓨터를 결합해 신약개발에서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p> <p>- ex) 美 스타게이트 LLC(암 백신 개발, 4년간 5천억불 투자)</p> <p>○ 신테카바이오는 Wet-Lab 파트너사 및 첨단 제약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온디맨드 표적 치료제 개발을 목표 중 (AI 기반 항체 및 소분자 자산 프로그램)</p> <p>○ 항체 설계 워크플로우 기술에 대한 개요</p> <p>① 결합 에너지(kcal/mol)의 정밀 계산부터 대규모 기능 검증</p> <p>② 1,000,000개의 항체를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높은 친화도, 특이성 및 개발 가능성을 갖춘 향상된 항체 확보</p> <p>○ "AI 기반 자산 프로그램" 관련 협업 물류시스템 제안</p>

□ 일본

발표자	내 용
<p>후지오카 츠구미 (藤岡 継美) 재팬.코스메틱 센터 사무국장</p>	<p>□ <b>환황해 지역에서의 바이오·헬스케어의 가능성에 대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품은 美와 건강을 연결하는 산업, 화장행위는 심신에 영향을 주고 QOL과 건강수명을 연장</li> <li>○ 일본 화장품산업은 2023년 기준 2조 4,780억엔으로 세계 3위이며, 고품질·안전성·신뢰성이 국제적으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첨단과학·바이오 연구 사례를 응용하여 고기능성분의 개발, 바이오플라스틱 도입 등 지속가능한 모노즈쿠리 추진 중</li> </ul> </li> <li>○ 재팬코스메틱센터의 활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자원 활용 : 화장품원료 수탁재배 등</li> <li>② 산학연계 : 국내지원 대학 14개로 공동연구 추진 등</li> <li>③ 한국과의 연계 : 전시회 공동출전, 클러스터 연계 등</li> <li>④ 중국과의 연계 : CO2경감기술을 활용한 화장품용기 개발</li> </ol> </li> <li>○ 환황해권의 지역간 협력을 위한, 美와 건강을 기반으로 한 교류방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美와 건강을 공통테마로 연구·산업연계를 추진</li> <li>② 한중일 각각의 천연자원 및 기술을 연결해 부가가치 창출</li> <li>③ 대학, 연구기관, 기업간 공동연구 및 청년인재 육성</li> </ol> </li> </ul>
<p>아키에다 시즈카 (秋枝 静香) 사이퓨즈 대표이사</p>	<p>□ <b>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한 재생의료와 신산업 창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이퓨즈사는 '바이오 3D 프린팅'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 의료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 창업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세포만으로 입체적인 장기를 만들어 환자에게 이식 등</li> <li>- 긴경의 재생, 혈관 재생, 연골 재생의 3개 파이프라인 제품을 보유</li> </ul> </li> <li>○ 환자 본인의 세포를 활용하여 제작하는 '자가세포제품'과 타인의 세포를 활용하는 '동종·타가제품' 중 선택 가능</li> <li>○ 이 외에 식품회사에는 소장, 화장품회사에는 피부를 판매하여 새로운 의약품 개발 등에도 활용되고 있음</li> </ul>
<p>가스가 요이치 (春日 良一) 파머즈서포트 대표이사</p>	<p>□ <b>AI 카메라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시스템 MOOVIE</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머즈서포트는 '농업의 미래에 새로운 업무방식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식재료의 안정공급을 위해 '사람'에 착목</li> <li>○ MOOVIE는 AI카메라가 24시간 365일 소를 감시하고 스마트폰에 통지하는 스마트 축산 시스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日와세대와 연계해 연구개발을 진행(감지 정확도 90~95%)</li> <li>② AI가 카메라 화상을 분석해 소의 양막, 꼬리들기, 송아지의</li> </ol> </li> </ul>

발표자	내 용
	<p>발급 등을 감지하면 어플로 통지(발정도 감지)</p> <p>③ 완전 비접촉식 시스템으로, 소에게도 사람에게도 편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세계 소의 수는 약 15억마리로, 글로벌 전개를 모색 중이며, 한국의 다모아테크사와 2025년 1월 MOU 체결</li> </ul>

□ 중국

발표자	내 용
<p>장젠 (张剑) 랴오닝성 상무청 부청장</p>	<p>□ 랴오닝성 소개 및 투자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랴오닝성과 한일 진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 48개사 5.1억불 투자 / 일본 : 118개사 8.7억불 투자</li> <li>- 심양에 한일 직항편 존재, 6개 항구 보유</li> <li>- 지역 혁신능력 성장률 전국 2위, R&amp;D장비 투자약 10년내 최고치</li> </ul> </li> <li>○ 랴오닝성은 다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경제무역 상담회 등과 같은 행사도 개최 중</li> <li>○ 한중일 청소년 국제스포츠 교류 행사 등 문화 및 인적교류 강화에도 힘을 쏟는 중</li> <li>○ 한일 양국 기업과 함께 녹색 저탄소 산업, 디지털경제, 바이오제약 등 협력기회를 적극 모색 중</li> </ul>
<p>옌옌(颜彦) 장수성 옌청시정부 부비서장</p>	<p>□ 옌청시 국제협력 카본제로 산업단지 조성 협력을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옌청시 및 산업단지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강 삼각주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도시로, 연간 산업규모 1조위안</li> <li>- 중국 최대 해상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2천만kW급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시를 달성</li> <li>- 5개의 1급 대외항만 보유로 한일 여객 및 화물항공노선 개통</li> </ul> </li> <li>○ 옌청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투자 지역이며, 약 1천개의 프로젝트와 130억달러 이상의 투자(한국 산업단지 有)</li> <li>○ 중국 최초의 녹색전력 인증 서비스 통합 연합체 설립으로, 탄소피크 시범도시 중 하나</li> <li>○ 국제협력 카본제로 산업단지 공동조성을 제안</li> </ul>
<p>왕웨이빈 (王建光) 저장성</p>	<p>□ 자싱시 소개 및 투자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싱시 및 산업단지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강릉과의 자매결연, 익산시와 우호교류 협약 등</li> </ul> </li> </ul>

발표자	내 용
자싱시 상무국 자싱 무역촉진회 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싱시는 저장성에서 한일 자본을 가장 많이 유치 (韓삼성, SK, 효성, 한국타이어, 日닛신, 스미토모화학 등)</li> <li>○ 한일기업이 자싱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편리한 인프라(도로, 고속철도망, 전 세계 60위 항구 위치, 자싱공항)</li> <li>② 완비된 산업사슬과 공급망 (신소재, 전자통신, 신소재, 자동차부품, 건강식품 등)</li> <li>③ 과학기술과 교육환경</li> </ul> </li> </ul>

□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발표자	내 용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T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협력 실태와 TCS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CS는 2011년 한중일 협력의 항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한중일 서밋 개최, 타기관의 한중일 협력사업 참가를 통해 한중일 협력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태양에너지의 65%를 차지하는 원적외선 효과를 적용하여 발열체 소재(그라파이트 등)를 제조</li> <li>② 최근발열 웨어러블 제품을 개발 중</li> </ul> </li> <li>○ TCS의 신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중일 지적재산 스타트업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청년인재의 지적교류와 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② 한중일 이노베이션 교류 in 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국 청년 STEM 인재교류,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용한 3국 공통과제의 해결</li> </ul> </li> </ul> </li> <li>○ TCS에서는 한중일경제보고서 2025를 발간, 한중일의 경제 동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과거 1년 간 지역경제 발전과 향후 전망을 제시</li> </ul> </li> </ul>

## 2 비즈니스포럼

### □ 한국

발표자	내 용
<p>유수남 에버웰테크놀로지 대표이사</p>	<p>□ 탄소 복합소재·응용제품 소개 및 한중일 협력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버웰테크놀로지가 생산하고 있는 소재(탄소복합/PI복합) 및 축사용 히터, 의류용 발열 패드 등에 대한 소개</li> <li>① 태양에너지의 65%를 차지하는 원적외선 효과를 적용하여 발열체 소재(그라파이트 등)를 제조</li> <li>② 최근발열 웨어러블 제품을 개발 중</li> <li>○ 한중일 산학 협력 제안</li> <li>① 부품 공동개발, 기업 간 공동연구, 우수기술 상호 이전, 제3국 시장 개척 및 개도국 지원</li> <li>② 기술이전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국 : 원자재 개발, 일본의 선진 기술 이전</li> <li>- 한-일본 : 코타츠 등 완제품의 개발</li> <li>- 한중일 기업 간 공동 마케팅 제안</li> </ul> </li> </ul>
<p>박신영 배재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p>	<p>□ 뇌 건강을 위한 멘탈케어 솔루션의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경정신질환의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로 글로벌 정신건강 관리 시장은 2025년 440억달러→2035년 6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음</li> <li>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AI 기반 스마트 멘탈케어, 웨어러블 경두개자극을 통한 자폐스펙트럼 치료 등 기술이 개발됨</li> <li>② 유전자 결손 마우스를 이용한 ADHD 원인 규명 및 OLED 광원 피로 플랫폼 개발 중</li> <li>③ 대전시-배재대-바이오/IT기업 3자 협력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의 멘탈케어 혁신 모델을 확립하고자 추진 중</li> <li>○ 배재대학교는 中 하북농업대 및 日 구마모토대와 한중일 바이오헬스 공동연구 플랫폼을 구축, 인재교류, 공동특허 및 논문발표 등을 진행 중임</li> <li>○ 환황해권 글로벌 멘탈케어 브랜드 육성 및 공동사업 제안</li> <li>① 기능성 바이오소재 기반 정서안정·인지개선 제품화</li> <li>② 공동브랜드 'Tri-BioMind(가칭)' 런칭 추진 등</li> <li>③ 협력에 따른 기대효과</li> </ul>



발표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위험기상 발생 시 신속한 전파 체계 구축 시급</li> <li>④ 빅데이터 및 AI 기반 기상정보서비스 필요성 증가</li> <li>○ 기후위기융합서비스 발전 전망과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글로벌 기상예보서비스 시장은 2024년 26.9억달러에서 2037년 70.6억달러로 성장, 기상기후 융합데이터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21.3% 성장 전망</li> <li>❷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한중일 산업별 기상기후융합 서비스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실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li> <li>- AI 모델의 고도화 및 기술 접근성 강화</li> <li>- 인력양성 및 역량 강화</li> <li>- 국제협력 강화</li> </ul> </li> </ul> </li> </ul>

## □ 일본

발표자	내 용
<p>하야다 케이스케 (早田 圭介) 아이루 대표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못난이채소를 활용한 '새로운 식자재·시트채소' (베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트채소 베지트는 야채를 반죽형태로 만든 후 건조시킨 새로운 식자재(두께 0.1mm, 100% 야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제조특히 취득하였으며, 코스트코, 다이소, 이온몰, 세븐 일레븐 등에서 판매 중</li> <li>❷ 베지트는 연간 500만톤 이상 발생하는 못난이채소를 활용, 농촌을 지원하고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공헌 중</li> <li>❸ 상미기한 5년으로 방재식품으로도 역할</li> </ul> </li> <li>○ 공장 1곳에서 연간 200만장 생산 가능하며, 중국과 한국의 파트너사를 모집 중</li> </ul> </li> </ul>
<p>다케시타 히데노리 (竹下 英徳) 토이메디컬 대표이사사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초에서 유래한 염분 오프셋 기술로 맛과 건강을 다 잡은 알긴산서플리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류의 사인 중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생활습관 등에 따른 비감염성 질환이며, 그 중 염분을 5g/일 이상 섭취 시 심장질환과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❶ 하지만 대부분의 인류가 8g/일을 섭취 중으로 섭취량을</li> </ul> </li> </ul> </li> </ul>

발표자	내 용
	<p>줄이는 것은 어려움</p> <p>② 알긴산은 염분을 배출하는 성분이 있으며, 다시마 및 미역 등 해초에서 유래한 알긴산을 함유한 서플리먼트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은 건강보다는 맛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향후 코팅기술을 개발, 염분 오프셋 기술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li> <li>○ 식품제조사 및 음식체인점에 제안, 맛은 변하지 않은 채 나트륨의 흡수를 억제하는 본사 제품을 세계로 전개</li> </ul>
<p>하시모토 키와코 (橋本 季和子) 주토쿠그룹 ACTA PLUS 대표이사</p>	<p>□ 폐기물을 활용해 사회를 매력적으로 바꾸는 방법, Re:Desig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A+는 500명 이상의 아티스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간연출 및 기획을 모색하는 기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은 올바른 일이지만 사람은 올바르다는 점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음. 무가치한 것을 유가치한 것으로, 글로만 쓰인 정론을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함</li> </ul> </li> <li>○ 소비 후 폐기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지만, 이러한 현상도 미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은, 가치기준을 재설계(Re:Design) 하는 것이 중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을 줄이는 사회 만들기와 동시에, '폐기물이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음</li> </ul> </li> <li>○ ACTA+는 현재까지 MUJI하카타, 오릭스호텔 등에 예술품을 설치했으며, 오릭스호텔의 경우 해당 호텔에서 버려지는 소재를 활용한 예술품을 제작하여 전시 중</li> </ul>
<p>고가 유타로 (古賀 勇太朗) 슈퍼웜 대표이사</p>	<p>□ 웜(Worm)을 활용해 생산한 곤충유로 환황해 경제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료유의 공급량 부족은 사회적 과제로, 바이오연료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정부의 SAF(지속가능한 항공연료) 의무화로 2030년 까지 수요의 7배 이상의 원유(原油) 공급이 필요</li> </ul> </li> <li>○ 웜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환경제어·양식자동화·품질개량을 진행 중이며, 순환형 프로세스를 통해 생산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웜을 이용한 곤충유로 SAF, FAME/HVO, 중유, 등유 대체</li> </ul> </li> <li>○ 환황해지역은 대기와 해양오염, 에너지안전보장, 식료안전 보장이라는 공통과제가 있으며, 일본의 기술(AI·바이오테크), 한국의 정제(화학·제조), 중국의 시장(대규모유통)을 합하면 교류 및 협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li> </ul>

발표자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ex) 각 지역의 폐기물(원료)를 가지고 공동생산거점에서 생산 후 시장에 유통</li> <li>② 지속가능한 연료의 공동소비가 가능</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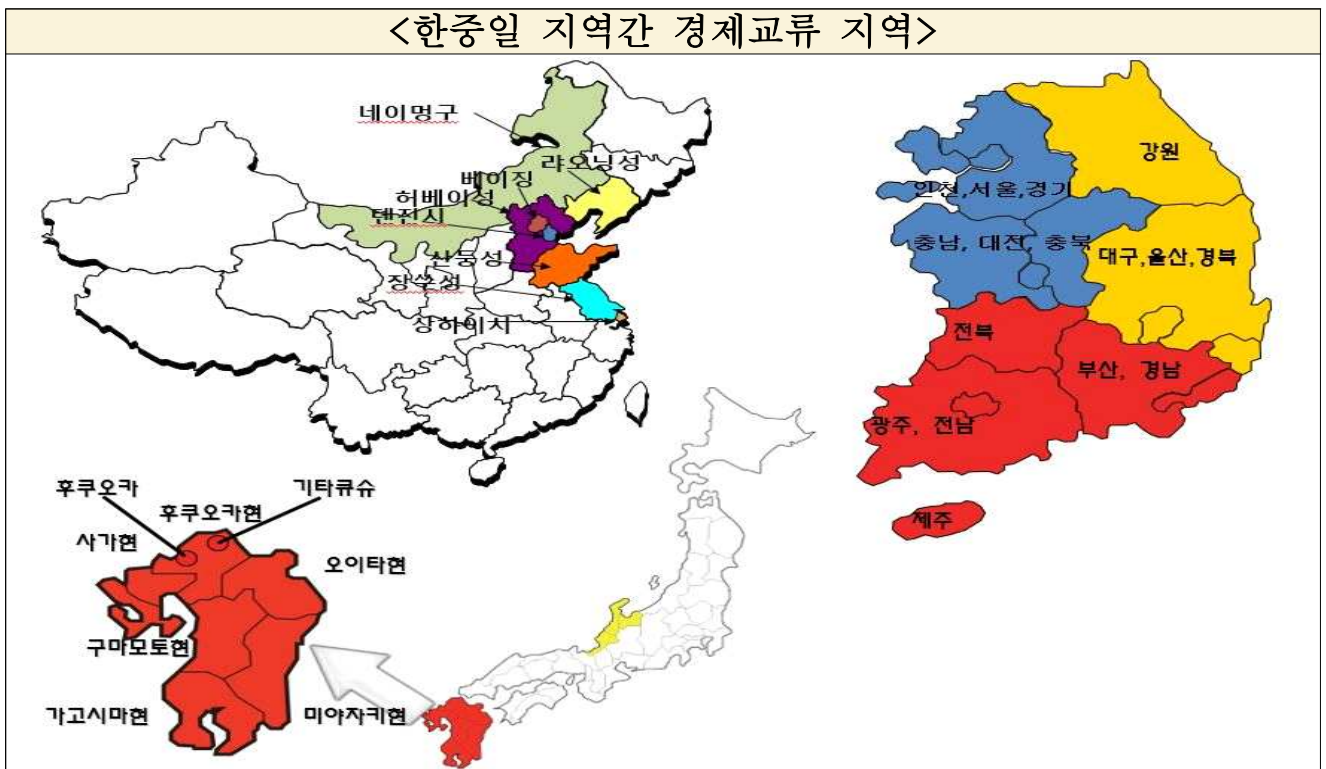
□ 중국

발표자	내 용
<p>왕리췌 (王立群) 길림성 상무청 부청장</p>	<p>□ 장춘시 산업단지 소개 및 투자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춘시 산업단지 등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최초의 바이오 산업기지, 주요 백신 및 유전자공학 의약품 생산기지, 3급병원 34개 등 완비된 의료시스템, 백두산 보유로 우월한 자연조건 보유 등</li> <li>- 누적 각종 대형 전시회 60회 개최 등 인프라 보유</li> </ul> </li> <li>○ '펀드+산업' 장기효과 메커니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억위안 규모의 장상(長業)펀드 : 중국 동북지역의 가장 큰 규모의 정부펀드, 그 중 50억위안이 바이오의약 펀드</li> </ul> </li> <li>○ 장춘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산업육성, 문화관광을 융합한 인삼전시 판매센터 구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산 인삼 산업 고품질 발전 5개년 계획 관철 등</li> </ul> </li> </ul>
<p>류용밍 (刘永明) 네이멍구 상무청 부청장</p>	<p>□ 내몽골 생물 의약 발전 현황 및 협력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몽골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및 몽골과 인접한 지역으로 베이징까지 2시간인 위치가 우월</li> <li>- 세계 최대의 리튬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토류 및 석탄 등의 매장량 전국 1위. 특히 희토류는 전세계 물량의 40%를 보유한 지역</li> <li>- 자원뿐만 아니라 전국 통합 컴퓨팅 허브 노드 중 하나인 울란차부-헬링거 신규는 전국 38%의 컴퓨팅 파워 규모를 자랑</li> <li>- 현재 한국기업 47사, 일본기업 56사가 내몽골에 투자</li> </ul> </li> <li>○ 생물 의약품 산업 발전의 천연 약창고 내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풍부한 지역으로 생물 발효 및 고순도 원료 의약품 산업 입지에 적합</li> <li>- 내년 환황해회의가 개최되는 후허하오터시는 동물 백신 생물 발효 및 합성 생물 산업의 중요한 입지</li> <li>- 구제역 백신 생산은 전국 1위, 타르트르산 탈레오마이신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li> </ul> </li> </ul>

발표자	내 용
<p>주바오룽 (朱宝荣) 장쑤성 상무청 부청장</p>	<p>□ 장쑤성 소개 및 투자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쑤성은 '일대일로' 연결점이자 핵심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경제총량 10%, 2024년 GDP 1.92조달러로 중국 2위</li> <li>- 세계 500대 기업 중 408개가 장쑤성에 투자</li> </ul> </li> <li>○ 장쑤성 자유무역시범구 '바이오의약 전 산업체인 개방혁신 발전방안' 국무원 승인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최초 생물 의약 시범성(省) 지정</li> </ul> </li> <li>○ 한일은 장쑤성의 중요한 경제무역 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무역 총액의 1/4, 중일무역 총액의 1/5 차지</li> <li>- 한일은 각각 4위, 3위의 외자 원천지</li> </ul> </li> </ul> <p>❶ 생물 의약 : 日 산텐제약 장쑤성 녹색공장으로 지정  ❷ 그린저탄소 : SK그룹 최대 규모의 동력배터리 생산기지  ❸ 소비 및 서비스 : 헬스케어, 의료미용, 실버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심화 희망(새로운 블루오션 공동개척)</p>
<p>왕샤오홍 (王晓红) 난통시 관리국 국장</p>	<p>□ 난통 산업협력시범구 투자환경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통시는 상하이까지 1시간 생활권으로, 2024년 GDP 1.2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전국 23위의 대중도시</li> <li>○ 난통 산업협력시범구는 외자기업이 1,000사 이상 입주하고 있는 글로벌기업 투자가치 톱10 시범구</li> <li>○ 난통 산업협력시범구에는 국제학교, 병원, 거주지(아파트), 5성급 호텔이 있으며, 온·오프라인 정부서비스를 통해 기업 비즈니스를 서포트</li> </ul>

## <참고 2>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개요

- (배경) ASEAN+3 정상회의('99년 필리핀, '00년 싱가포르)에서 한중일 3국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 환황해권의 정기적 협력채널 구축에 합의
- (목적) 한중일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동북아 자유무역권 구상의 기반을 구축
- (현황) 제1회('01.3월, 일본 후쿠오카) 개최 이래 한-중-일 順으로 순회 개최
  - 총 23회 개최, 총 참가자수 8,142명(한국 2,329명·일본 2,887명·중국 2,893명·TCS 33명)



- ▶ 한국(15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중국(3시 6성 1구) : 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지린성, 네이멍구자치구
- ▶ 일본(큐슈지역 7개현 3정령시) :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성과) 한중일 3국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 지역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무역·투자·산업기술 교류확대와 지역 간 교류를 촉진
  - \*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량, '01년 1,638억불에서 '24년 6,586억불로 약 4배 성장

## 〈참고 3〉 제2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본회의 개요

### 1. 행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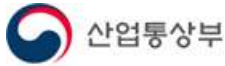
- 일 정 : 2025.11.17.(월)~11.21(금) \* 본회의 : 11.19(수)
- 장 소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 한→중→일 順 개최
  - (행사장) 호텔ICC
- 주최 및 주관
  - 韓 산업통상부, 한일경제협회,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中 상무부  
日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큐슈경제산업국, 큐슈경제연합회)
- 참석자 : 한·중·일 3국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기업 등 332명
  - (韓)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서석송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 (中) 왕리핑(王立平) 상무부 아주사 사장
  - (日) 호시노 미츠아키(星野 光明) 큐슈경제산업국장  
이케베 카즈히로(池辺 和弘) 큐슈경제국제화추진기구 회장
- 주 제 :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  
~ 바이오헬스케어·과학기술(AI)·비즈니스 교류 ~

### 2. 프로그램

시 간	행사내용	
14:00~14:05	한	사회 : 서석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b>【주요인사 기념촬영】</b> (5분)		
14:05~14:10	한·중·일	3국 주요인사 기념촬영 (무대 위)
<b>【3국 대표 인사】</b> (각5분×3명)		
14:10~14:15	한	이재근(李在根)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시 간	행사내용	
14:15~14:20	중	왕리핑(王立平) 아주사 사장
14:20~14:25	일	호시노 미츠아키(星野 光明)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 국장
<b>【개최지 대표 인사】 (5분×1명)</b>		
14:25~14:30	한	박영규(朴英圭) 대전광역시 국제관계대사
<b>【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 (10분×1명)</b>		
14:30~14:40		즈시 슈우지(図師 執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차장
14:30~14:40		「 한중일 협력의 실태 및 TCS의 역할 」
<b>【3국 경제·기술교류사례 소개 및 제안】 (각15분×3명×3개국)</b>		
14:40~14:55	한	최우각(崔雨珪) (주)대성하이텍 대표이사
		「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 사례를 통한 정밀 기계 산업 발전 미래 」
14:55~15:10	중	장 쟈(张剑) 랴오닝성 상무청 부청장
		「 랴오닝의 새로운 기회 공유, 협력의 새로운 장 개척 」
15:10~15:25	일	후지오카 츠구미(藤岡 継美) (일사)재팬 코스메틱센터 사무국장
		「 아름다움과 건강을 이어주는 화장품 산업 - 환황해권에서의 바이오·헬스케어의 가능성 」
15:25~15:40	한	정종선(鄭鍾善) (주)신테크바이오 대표이사
		「 AI & Cloud 기반 초격차 신약개발 → 협력 비즈니스 모델 」
15:40~15:55	중	옌 옌(颜彦) 장쑤성 옌청시정부 부비서장
		「 국제 협력 카본제로 산업단지 조성, 녹색 저탄소 발전 추진 」
15:55~16:10	일	아키에다 시즈카(秋枝 静香) (주)사이퓨즈 대표이사
		「 바이오 3D 프린터를 이용한 재생의료와 신산업 창출 」
16:10~16:20	휴식 (10분)	
16:20~16:35	한	김재성(金在成) (주)트위니 로봇사업본부장
		「 AI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오더피킹’을 통한 환황해 물류 시장 혁신 및 협력 방안 」
16:35~16:50	중	왕젠광(王建光) 저장성 자싱시 상무국 자싱무역촉진회 부회장
		「 자싱(嘉兴) 꿈이 이루어지는 곳 」
16:50~17:05	일	가스가 료이치(春日 良一) 파머스 서포트(주) 대표이사
		「 AI 카메라로 개척하는 소 축산 분야의 새로운 작업 방식 」
17:05~17:35	질의응답 (30분)	
<b>【차기개최지 소개】 (10분)</b>		
17:35~17:45	중	마윈페이(马云飞) 네이멍구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상무국 대외무역과장

시 간	행사내용
<b>【전체총괄·폐회】</b> (5분)	
17:45~17:50	전체총괄·폐회 : 서석송(徐錫崇)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b>【단체 기념촬영】</b> (10분)	
17:50~18:00	한·중·일 3국 대표단 단체 기념촬영 (무대 위)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9.(수) 06:00 <11.19.(수) 석간> 배포 2025. 11. 18.(화)

## 환황해(韓·中·日) 지역 성장·발전을 위한 산업·기술 실질 협력 논의

- 韓 대전광역시에서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개최 (11.18~20)
-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모색

한국(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중국(상무부), 일본(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가 11.18.(화)~20.(목)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01년 이래 3국간 교대로 개최되어 오고 있으며, 지난 제13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25.3월, 서울)를 통해 3국 기업 및 기술 교류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한 협의체이다.

\* 한·중·일 무역·투자·산업기술 협력 추진을 위해 지역간 정기 협력 채널 구축(‘01~)

이번 회의에는 이재근 산업통상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왕리핑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 호시노 미츠아키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경제산업국장 등 3국 정부 대표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주최지)의 박영규 국제관계대사 등 한·중·일의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경제단체 등에서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환황해 경제권의 성장·발전」을 전체 테마로 하는 이번 회의에서 ▲바이오·헬스케어, ▲과학·기술, ▲비즈니스 교류 등 세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성과와 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고, 환황해 지역의 혁신 생태계 조성 과 3국 간 산업·기술 협력의 실질적 연계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아울러, 이번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에 3국 지역 경제인들이 대거 참여한 점을 고려,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경제협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었다. 특히, 「비즈니스 상담회(11.20)」에서는 한·중 및 한·일 기업

간 약 200여건의 상담이 진행되는 등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연계 성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3국이 함께하는 행사 외 한중 및 한일 양자 차원의 별도 협력 프로그램도 개최되었다. 한·중 간에는 제3국 공동진출 포럼(11.20)을 통해 ▲제3국 시장 협력 및 공동진출 방안 모색, ▲제3국 시장 진출 경험·정보 공유 등을 진행하였다. 한·일(큐슈) 간에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큐슈 경제교류회의 2025 (11.18)」를 개최하여, 반도체-자동차 등 핵심 산업 공급망이 밀접히 연계된 한-큐슈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한일경제협회-큐슈경제연합회 등 양자 경제협력 대표 기관의 ▲지역·기관·기업 간 교류 촉진, ▲미래산업·저출산·지역소멸 등 공통과제 해소, ▲인적교류 확대 등 미래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도 발표하였다.

한편, 산업통상부(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는 중·일과 3국 국장회의를 개최하여 3국 정부 간 무역·투자 활성화 방안, ICT·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 제4국 진출 등 3국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중·일 대표단과의 개별 양자회의를 통해, 통상현안 및 관심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덕구 (044-203-5690)
		담당자	수석전문관	전우표 (044-203-5696)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6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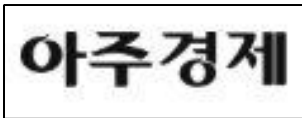
[대전서 열린 환황해 회의...한·중·일, 바이오·AI 협력 강화](#)



[대전서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한·중·일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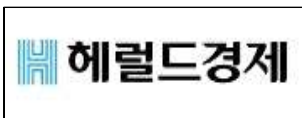
["바이오헬스케어·인공지능, 한중일 파트너십 견고하게"  
산업부, 환황해 교류회의…한중일 산업·기술 실질 협력 논의](#)



[한·중·일, 산업·기술 실질 협력 논의...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발굴](#)



[대전서 한·중·일 경제·기술 교류로 신냉전 극복한다  
18~20일 대전서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한중일 협력 논의](#)



[대전시, 바이오헬스케어와 AI 한중일 파트너십 더욱 견고](#)



[대전서 21일까지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신테카바이오, 환황해 교류회의서 AI 신약개발 모델 소개](#)



[바이오헬스케어와 AI 한중일 파트너십 견고해진다](#)



[신테카바이오, 환황해 교류회의서 AI 신약개발 모델 '딥매처' 소개](#)



[대전서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 가속...한·중·일 전략산업 협력](#)



[대전시, '제23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



[신테카바이오 , 환황해 교류회의서 AI 신약개발 모델 소개](#)



[韓·中·日, 환황해 지역 발전 위한 산업·기술 협력 논의](#)



[신테카바이오, 중·일 기업들에 AI 신약개발 모델 소개](#)



[환황해 3국, 대전서 협력 해법 모색](#)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개최…한·중·일, 실질 협력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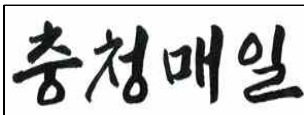
[해양 갈등 한중일, 환황해 산업·기술 협력 확대](#)



[대전서 바이오헬스케어와 AI 한중일 파트너십 견고해진다](#)



[대전서 제2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열려…환황해경제권 성장·발전 주제](#)



[바이오·AI 한·중·일 협력, 대전서 속도 붙는다](#)



[韓·中·日 바이오·AI 파트너십 확대…기업 협력도 속도](#)